

<2010년 7월 15일 목요일 새벽 잠언>

1. 세상에 잘되는 길 있다고 문 열어 주면 안 된다. 잘 안 된다고 문 열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, 잘되더라도 결국은 자기 영혼과 육신이 사망으로 가니 열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.
2. 유익된다고 가고, 잘된다고 세상으로 가면 생명길은 못 간다. 생명길을 가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다 있다.
3. 세상 물질세계를 중심하여 산 자와 신앙을 중심하여 산 자를 3년 후, 10년 후에 보면 신앙을 중심하여 산 자가 더 잘되어 있다.
4. 육신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 육신은 좀 편하다. 하지만 영과 마음은 편치 않고 얻는 것이 적다. 영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육은 불편하다. 하지만 영과 마음은 편하다. 결국 영에 중심을 두고 산 자에게 남는 것이 있다. 이는 보편적으로 계산한 것이다.
5. 육신을 위해 전문적으로 산 자와 주의 뜻과 영을 위해 전문적으로 산 자를 비교해 보면 영을 위해 산 자는 거의 영적인 의의 재벌가가 되고, 육을 위해 산 자는 가끔 육신의 재벌가가 되지만 나머지 많은 자들은 오히려 실패자가 된다. 육신은 유지만 하고, 나머지는 영을 위해 살아야 영원한 희망의 사람이 되어 인생 승리자가 된다.